



국제관악콩쿠르 가장 많은 참가자 몰렸다

내달 8~16일 국제관악제 콩쿠르 258명 역대 최대 국제컨벤션센터 개막 공연 '3개의 제주민요' 등 선곡 젊은 작곡가 창작곡 초연

제주국제관악콩쿠르에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이 신청서를 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은 제주색을 품은 관악곡으로 채워진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는 24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최종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4회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와 14회째인 국제관악콩쿠르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문예회관 대극장, 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실내외에서 43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 규모는 25개국 4200여 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다. 개막 공연은 '제주'를 주제로 8월 8일 오후 7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이 재일동포 작곡가 고창수의 '3개의 제주민요', 문충성의 시에 곡을 붙인 고승익의 '이어도'를 연주하고 세계 최정상 트럼펫 주자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카운터 테너 이동규, 도쿄필하모니 클라리넷 종신 수석 조성호가 협연한다. 좌석이 1700석으로 한정돼 사전 관람 예약을 해야 한다. 8월 9일에는 문예회관에서 '오늘의 관악곡'을 공연한다. 국내 젊은 작곡가 5명의 창작관악곡을 초연하는 자리로 국제관악제의 음악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기획됐다.

같은 날 국제관악제에 일곱 차례 방문한 세계 최고 금관5중주단인 '스패니시 브라스' 창단 30주년 기념공연도 마련된다. 8월 15일 해변공연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 공연에서는 도내의 시민연합합창단 350여명이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과 호흡을 맞춰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을 펼쳐놓는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젊은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지휘봉을 잡는다.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는 고산, 대평리만이 아니라 도두와 성산포를 포함 4곳에서 치른다. 우리동네 관악제는 피아노박물관, 용담여영공원 등 새로운 장소를 늘렸다. 국제관악콩쿠르는 대회 개설 이래 가장 많은 258명이 접수했다. 예년 평균 180명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국내 참가자가 102명에 이른다. 금관



5중주 2팀, 개인 부문 3명은 제주대를 졸업한 제주 출신 음악인들로 의미있는 도전에 나선다. 이번 콩쿠르에는 특히 부상으로 관악기를 제공하는 세계 유명 악기 제조사들의 협찬이 기다리고 있고 국제호른협회(IHS)는 호른 우승자에게 미화 1000달러를 수여한다. 문의 064)722-8704. 전선희기자

시(詩)로 읽는 4:3 (18)

이덕구 산전

정근철

스무셋새 4월의 햇, 살을 만지네
살이 튼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가죽나무 이파리 사시나무 잎 따는 숲
가죽 얇은 내 사지 떨어오네

울담 쓰러진 서너 평 산밭이
스물아홉 피 맑은 그의 집이었다
하네
아랫동네를 떠나 산중턱까지 올
라온
아랫동네 사기사밭과 무쇠술이
깨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네
그 숲에나 잡목으로 서,

살 부비고 싶었네
그대 한 시절에 무릎 꿇은 것, 아
니라
한 시절이 그대에게 무릎 꿇은
것, 이라
순전화가 문자 꼭꼭 눌렀네
산밭나무 꽃잎 떨어지네
음복하는 숲산 속 그 꽃잎 반가
웠네
그대 밭자국 무수한 산 밭길의
살비듬
어깨 서서히 대워주었네
나 며칠 북받쳐 앓고 싶었네

이덕구산전(山田)은 사라니숲길 입구에서 천미전을 지나 바로 오른편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한참 가다 내장을 건너 올라가면 나온다. 원래는 산으로 온산했던 봉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엔 이덕구(李德九) 부대가 주둔했다. 속칭 '시안모루', '북받침밭'이라 불리는 곳이다.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남아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술과 그릇들이 남아있다. 후세대들이 이름 붙인 이덕구 산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아름답고 아련하다. 이덕구는 어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미쓰메이칸(立命館) 대학 경제학부 재학 중 관동군에

입대하였다. 1945년 귀향한 뒤 조전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을 가르쳤다. 얼굴은 살짝 곰보이며 미남형이었다. 늘 목소리가 컸으니 이는 미군정에 의해 구인되어 고문을 받을 때 고막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다. 입산하여 인민유격대 3·1지대장으로 제주읍·조천면·구좌면에서 활동했다. 김달삼(金達三)이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뒤 남로당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과 인민유격대사령관 직책을 이어 받았다. 1949년 6월 7일 16시 화북지구 제623고지에서 사살되었다. 사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29세.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예술로 펼치는 해양도시 제주의 빛깔

두번째 국제해양예술제 제주 등 26개국 150여점

해양도시 제주 이미지를 담은 미술제가 열린다. 이달 26~29일 아시아안 ACS(Asian Federation of Arts Culture and Science)와 국제해양 예술협회(IAOA) 공동 주최로 제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2층 6~7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2019 IOAP 국제해양예술제다. 2회째인 국제해양예술제는 제주를

중심으로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교토, 오스트리아 빈, 핀란드 헬싱키 등에서 공동·순회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출신 부종철 상해공정기술 대학 교수가 공동 기획자로 참여했다. 전시 기간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태국 초대작가 등 26개국 150여점과 아동·청소년 작품을 볼 수 있다. 제주미술협회 회원 등 제주 작가 작품 20여점도 놓인다. 둘째날에는 해양사생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 010-5691-2250.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바다쓰레기 등을 이용한 제주 고재만의 '내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먼 바다 깊은 곳의 이야기'.

문화가 쫓지

서예가 전윤희씨 개인전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예가 전윤희씨가 이달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1990년부터 서예 공부를 해온 전윤희 서예가는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는 전자문과 좋은 글귀를 골라내 해서, 행서, 예서, 전서 등 여러 서체로 담아내며 그간의 글씨 공부 결실을 내보인다. 문의 064)710-7633.

창작디딤돌 신청 편의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9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민원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민원서비스는 신청기간(우편 7월 29~8월 2일, 온라인 7월 29~8월 16일)을 앞두고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을 받도록 전화나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65세 이상 등 정보소외계층은 신청 대행 서비스도 받는다. 문의 064)800-9138.

부진철 싱글 '나만' 발표

싱어송라이터 '섬의 편지' (부진철)가 신곡 '나만'을 내놓았다. '나만'은 고독하게 읊조리는 보컬 '질은', 맑고 영롱한 울림의 피아니스트 '이사라'와 협업한 발라드 곡이다. 잊기로 한 혼자만의 다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렸다. 배우 박가영, 감독 김영현이 신비로운 제주 숲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앞서 '섬의 편지'는 '그 겨울 평대리', '옹눈이 오름' 등 제주의 특별한 공간을 담아낸 노래를 발표했다.

내일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소장 최희순)는 이달 26일 제주시 탐동 청소년광장에서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이음-콘서트'를 연다. 이번 축제에는 장애인 뮤지션 양정원, 김원필, 윤명희를 비롯 마임이스트 김상홍, 피아니스트 장인밴드 T-SUM 등이 공연하고 시화작품 전시도 마련된다. 캘리그래피, 페이스페인팅, 매듭발찌 만들기, 타투스티커, LED부채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잇따른다. 문의 064)751-8095.

창작뮤지컬에 담은 '김녕사굴' 설화

'손 없는 색시' 27일 초연 서귀포관악단 김경택 작곡

제주 여성의 성장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한 편이 여름 무대에 올려진다.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수석 단원인 김경택씨가 총감독과 작곡을 맡아 이달 27일 제주도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초연되는 '손 없는 색시' (김지식 극본, 김재한 연출)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예술 공모 지원사업 창작부문에 선정된 이 작품은 제주 판관서련과 김녕사

굴 설화, 서복 이야기 등을 모티브로 했다. 감미롭고 다채로운 음악을 바탕으로 제주 설화와 여인에 얽힌 사연이 그려진다. 제작진은 "데모 음원을 바탕으로 한 오디션 당시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제주 설화 소재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프랑스 파리 한인예술인협회 초청공연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석 초대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공연 시간은 오후 3시와 7시30분 두 차례. 프라임 워크프젝트가 제작을 맡았다. 문의 064)710-4204. 전선희기자

취득 임용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약학박사학위 취득 및 동 대학 약대교수 임용

강현아
(부: 강승화(前 제주도청 본부장) · 모: 오향자(서귀포 토평))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계속 정진하여 큰 재목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빠 형제 일동
강봉일·김옥순, 강순원·신영미, 강봉수·고복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마보'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